

현대 남성 스커트의 성별이미지에 따른 디자인 특성과 남성적 이미지의 확장

류림정 · 이지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Design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Male Skirt and Expansion of the Masculine Image

Limjeong Ryu and Jeehyun Lee[†]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 Male skirt is found in traditional costumes all over the world. Due to the development of tailoring skills in the early Middle ages, men started wearing breeches and pantaloons gradually distinguishing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menswear and womenswear. Since then, skirt became the strong representation of the female gender, symbolizing the femininity. However, under the influenc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in 2000s, gender identity has been diversely expressed in modern fashion allowing male gender to embrace different sexual identiti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of male skirts, which have been popularized in modern men's fashion through both the expressional elements and compositional elements. This study associates design elements of male skirt, gradually appearing in the contemporary men's fashion with the sexual symbolism and reinterpreted its significance in the flow of the modern fashion. Reinterpretation of the gender image in costumes are considered to contribute to the cultural context and extension in diversity. These research results forms a basic foundation to expand in studies of men's fashion design and gender image of costumes through cultural contexts and its changes. It is considered that this can lay groundwork to make various attempts at passing over the archetype of the gender image besides the continuous appearance of male skirt in the field of fashion design.

Key words : femininity(여성성), image of gender(성별 이미지), male skirt(남성 스커트), masculinity(남성성), men's fashion(남성 패션)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최초의 의복 형식이었던 스커트(Skirt)는 하반신을 감싸는 형태로 본래 성에 구애받지 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착용하는 공통의 복식이었다. 남성 스커트는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스와 곳곳에 세계 전통 복식에서 나타나 있다. 중세 초기 테일러링(Tailoring) 기술이 발달하면서 남성이 브리치(Breeche) 형태의 바지와 판탈롱을 착용하게 되었고, 점차 남녀의 복식이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스커트를 착용하는 남성들이 사라지면서 현대의 스커트는 여성 하의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복으로 인식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다원화 영향으로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성 정체성 표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유니섹스(Unisex), 앤드로지니어스(Anderogous),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위버섹슈얼(Uebersexual), 젠

더리스(Genderles),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 테크노섹슈얼(Technosexual) 등과 같이 남녀의 성 역할 구분을 탈피하고, 개성과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는 남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남성복과 여성복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여성들이 남성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컬렉션에서 남성 스커트가 다시 등장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오랫동안 여성의 상징적 복식으로 여겨져 온 스커트가 현대 남성 패션에서 남성 고유의 개성과 기능성, 실용성을 모두 갖춘 남성복으로서의 스커트가 다시 도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성 스커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남성 스커트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Lee et al., 2004; Lee & Lee, 2005a)와 트렌드 현상에 대한 분석(Bang, 2007; Lee & Lee, 2005b; Woo, 2004)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남성 스커트 디자인을 사회적·문화적 측면으로 분석, 접근하여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디자인 특성과 문화적 상징 및 의미를 연계하여 디자인연구의 다양성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특히 현대 남성 스커트를 성별 이미지에 따른 디자인 표현요소와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표현요소와 구성요소의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별 상징

[†]Corresponding author; Jeehyun Lee
Tel. +82-2-2123-3159, Fax. +82-2-2123-8661
E-mail: ez2@yonsei.ac.kr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성을 가지는지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 스커트의 디자인 요소별 특성과 상징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 남성 스커트 디자인을 통해 나타나는 남성적 이미지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남성 스커트의 디자인 요소별 특성과 상징성 분석을 위해 스커트의 개념과 정의, 역사적 이론을 고찰하였고, 성별 이미지에 따른 패션디자인 요소와 특성을 문헌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 디자인 요소를 ‘무늬, 재질, 색상, 길이, 유형, 착장방식’ 6가지로 나누었으며, 크게 디자인 요소를 외형적 표현요소(무늬·재질·색상) 및 구성적 요소(길이·유형·착장방식)로 유형화하여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 디자인 요소 분석을 위하여 최근 5년간 2014년 S/S, F/W부터 2010년 S/S, F/W까지 스타일닷컴(www.style.com), 보그 영국(www.vogue.co.uk),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 퍼스트뷰코리아(www.firstviewkorea.com)를 참고하여, 세계 4대 컬렉션인 런던(London), 밀라노(Milano), 뉴욕(New York), 파리(Paris)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스커트 사례 4008개를 수집하였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남성 컬렉션에 나타난 스커트 중 남성 모델이 착용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객관적 분류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한 시각적 판별 가능성 검토를 위해 패션 관련 전문가 집단 7명을 통해 데이터 검증을 2차례 실시하였다. 최종 수집한 전체 데이터 4008개 중 2차의 전문가 검증을 통해 압축된 최종 1783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스커트의 개념 및 유형

스커트(Skirt)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의복으로, 직물이나 동물의 피부를 허리나 엉덩이에 둘러 하반신을 감싸는 형태가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 하반신을 가리는 기능을 가진 복식으로 본래 성에 구애받지 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착용하였으나, 중세 초기 남녀의 복식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성들만이 착용하게 되었다. 스커트는 하나의 독립된 의복으로써 상의와 함께 입기도 하며 한 벌의 형태인 원피스의 형태로 착용하기도 한다. 인체의 하반신을 둘러싸는 독립된 요의인 스커트는 드레스(원피스)와 코트의 허리선 아래 부분을 통틀어 말하기도 한다(Oh & Park, 2001).

스커트의 유형 중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타이트(Tight), A라인, 고어드(Gored), 서클러(Circular), 랩어라운드(Wrap Around), 플리즈(Pleats), 개더(Gather), 요크(Yoke), 러플(Ruffle), 점퍼(Jumper), 킬트(Kilt), 벌룬(Balloon) 등이 있다(Kim, 2003).

스커트의 길이에 따른 분류로는 마이크로 미니(Micromini skirt), 미니(Mini skirt), 내추럴(Natural line skirt), 미디(Midi

skirt), 맥시(Maxi skirt), 풀 령스(롱)(Full length long skirt) 등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Oh & Park, 2001).

2.2. 성별 이미지와 패션 디자인 요소

젠더는 선천적으로 가지게 된 성이 사회적·심리학적·문화적 요인의 영향으로 습득된 남녀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기대와 이미지는 남성적인 특성, 여성적인 특성과 같은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한다. 현대 복식에서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룬 선행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성별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남성스커트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 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색채, 재질, 무늬, 형태 네 가지의 디자인 요소로 분류하여 각각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소를 모아 특성을 분석하였다.

(1) 여성적 이미지의 패션 디자인요소

여성성 이미지를 가진 색채를 살펴보면 Lee(1993)는 화려한 유채색, 중간에서 밝은 채도의 색이라고 하였고, Kim(1995)은 화려한 유채색, 고명도, 약간 가라앉은 느낌의 중채도, 산뜻한 고채도, 붉은 계통의 색, 파스텔색상, 대비가 강하지 않은 색, Park(1995)는 화려한 유채색, 명암이 높은 파스텔 톤, 채도가 높은 비비드 톤, 빨강, 노랑, 핑크로 보았다. Lee and Park(2005)은 R계열, YR계열, Y계열, 비비드 톤, 파스텔 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공통된 여성성의 색채 요소는 화려한 유채색, 빨강, 노랑, 파스텔 톤, 비비드 톤이었다.

재질에서는 Lee(1993)에 따르면 여성적 이미지의 재질은 가볍고, 부드럽고, 얇고 바삭거리고, 비치는 직물이라 하였고, Kim(1995)은 얇고 부드러운 재질, 비쳐 보이는 재질, 광택이 있는 재질, 표면에 정교한 기계주름 등으로 표면이 고르지 못한 비 균일한 표면, Park(1995)는 부드럽고 얇은 재질, 유연한 재질, 비치고, 드레이프성이 있는 직물, 실크, 쉬폰, 오간자, 망사, 활동성과 피트감을 주는 소재(니트, 스판소재)라고 하였으며, Lee and Park(2005)은 비치는 소재, 부드러운 소재, 광택소재, 신축성소재로 보았다. 재질의 공통된 요소를 보면 부드럽고 얇은 재질, 비치는 소재, 광택소재, 신축성 있는 니트, 스판소재가 나타났다.

무늬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요소를 Lee(1993)는 꽃무늬, 추상화 된 무늬라고 하였고, Kim(1995)은 비명료형 무늬, 자연 무늬(꽃무늬, 식물무늬), 추상적 무늬, 전면무늬, Park(1995)는 꽃무늬, 추상적 무늬, 작고 곡선적인 무늬, Lee and Park(2005)은 꽃무늬, 도트무늬, 추상무늬라고 보아서 전체에서 나타난 공통된 여성성 무늬 요소는 자연 무늬(꽃무늬, 식물무늬), 추상적 무늬, 도트 무늬라고 보았다.

형태에 해당하는 복식의 실루엣을 보면 Lee(1993)는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한 X형, Kim(1995)은 볼륨있는 가슴, 가는 허리, 경사진 둥근 어깨, 풍성한 엉덩이를 강조한 X자형,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한 형, Park(1995)는 부드러운 곡선 X실루엣, 아워클래스 실루엣, 신체강조(허리가 피트(Fit)되는 스타일로 보

Table 1. Fashion design elements of the feminine image and masculine image

Fashion design element	Feminine image	Masculine image
Color	bright chromatic color, red, yellow, pastel colors, vivid tones	achromatic color, low brightness, intensive contrast
Fabric texture	soft and thin fabric, see though fabric shiny and glossy fabric, stretchy knit, spandex	hard and stiff fabric, wool, matt texture
Pattern	natural patterns (floral, plant design), abstract patterns, polka dots	geometric patterns (stripes, check), plain, single pattern
Form (Silhouette)	emphasized × silhouette	silhouette (emphasizes the shoulders and chest), H-line straight silhouette

아 공통된 요소 모아보면 여성성 이미지의 실루엣은 신체를 강조하는 X실루엣으로 볼 수 있었다.

(2) 남성적 이미지의 패션 디자인요소

남성성 이미지를 가진 색채의 특징에 대해서 Lee(1993)는 단순하고 세련된 무채색, 중간 채도의 색이라고 하였고, Kim(1995)은 단순하고 수수한 무채색, 어둡고 짙은 저명도, 가라앉은 느낌의 무거운 저채도, 감색계통의 색, 대비가 강한 색이라 하였으며, Woo(2004)은 다양한 유채색과 무채색 사용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색과 중간색 사용, 배색하지 않은 단일 색 사용, 문양이나 트리밍으로 인한 배색 사용, Lee(2010)는 무채색 계통, 한색, 짙은 색상, 저명도, 대담하고 강한 배색, 강한 명도대비, 베이비 블루, 로열 블루, 로열 퍼플, 베이지, 갈색, 검정이라고 하였다. 남성성 이미지의 공통된 요소의 색상은 무채색, 저명도 그리고 강한 명도대비로 볼 수 있다. 재질의 남성성에 대해 Lee(1993)는 무겁고, 거칠고, 양감이 있는 딱딱한 직물, Kim(1995)은 두껍고, 딱딱한 재질, 비쳐 보이지 않는 불투명 재질, 광택이 없는 재질, 표면 질감이 고른 균질 표면이라고 했으며, Woo(2004)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천연 섬유, 기능적이고 다양한 재질감의 합성 섬유, 가죽, 니트, 시스루, 레이스, 광택소재, 스무스(Smooth) 질감, 소프트 질감, 플레인 질감, 스티프(Stiff) 질감, Lee(2010)는 무겁고 거친 직물, 뻣뻣한 소재, 울이 곱은, 무거운 트위드, 모직, 비치지 않는 재질, 표면질감이 균일 한 재질이라 하여 공통된 요소로 나타난 재질은 딱딱하고 뻣뻣한 소재, 모직, 광택이 없는 재질이었다.

무늬에 나타난 남성성은 Lee(1993)에 따르면 스트라이프, 체크, 기하학적 무늬 혹은 무지라고 하였고, Kim(1995)은 명료형 무늬, 기하학적 무늬(줄무늬, 체크무늬, 기하학적 도형), 무지, 단독무늬로 보았고, Woo(2004)은 문양이 없는 무지, 기하학 무늬(체크패턴), 자연 무늬(플로랄 패턴)가 높게 나타났으며, Lee(2010)는 스트라이프, 기하학, 무지, 큰 무늬, 격자무늬, 날카로운 모티브, 인공적인 무늬, 단독 무늬로 보았다. 무늬의 공통된 요소를 모아보면 기하학적 무늬(스트라이프, 체크), 무지, 단독무늬라 할 수 있다.

남성적 이미지의 형태는 Lee(1993)에 따르면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Y형, Kim(1995)은 넓은 가슴과 각지고 큰 어깨를 강

조하는 Y형, 직선형 H형, 바지, Woo(2004)은 루즈(loose)하고 자연스러운 일자라인의 스트레이트 실루엣, 직선적이고 콤팩트한 스트레이트 실루엣, 치맛단까지 약간 멀어지는 에이라인 실루엣, 허리부분부터 풍성한 벨크 실루엣이라 하였으며, Lee(2010)는 어깨를 강조하는 Y실루엣, V실루엣, T실루엣, 직선적 이미지의 H실루엣으로 보았다. 공통된 요소는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Y실루엣, 스트레이트 H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성별 이미지를 가진 패션디자인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Table 1).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의 디자인 분석

3.1. 남성 스커트의 표현 요소에 따른 디자인 특성 분석

디자인의 기본적인 조형요소에는 점, 선, 면, 형, 색, 크기, 명암, 질감 등이 있다. 이중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남성스커트의 경우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무늬, 소재의 유광·무광, 뻣뻣함·부드러움을 판별 할 수 있는 재질, 그리고 채도를 제외한 색상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실물이 아닌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한점 때문에 재질은 시각적 질감의 차이를 통해 분류하였다. 또한, 디자인 요소 중 실루엣은 전체의 실루엣이 아닌 스커트만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요소가 아닌 구성 요소 중 스커트의 유형을 따로 분석하였다.

3.1.1. 남성 스커트의 무늬 분석

의복에서 장식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무늬이며, 장식적인 무늬는 가장 순수하게 의복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Kim, 1992). 본 연구에서는 무늬의 유형을 무늬 없음, 기하학 무늬, 도트 무늬, 단독 무늬, 추상 무늬, 자연 무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데이터의 무늬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복 체크를 포함한 총 1871개의 남성 스커트에 나타난 무늬 중 무늬 없음이 59.8%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무늬가 28.6%로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추상적 무늬 5.0%, 자연 무늬 4.3%, 단독 무늬와 도트 무늬는 0.1%의 차이로 단독무늬가 1.2%, 도트 무늬가 1.1%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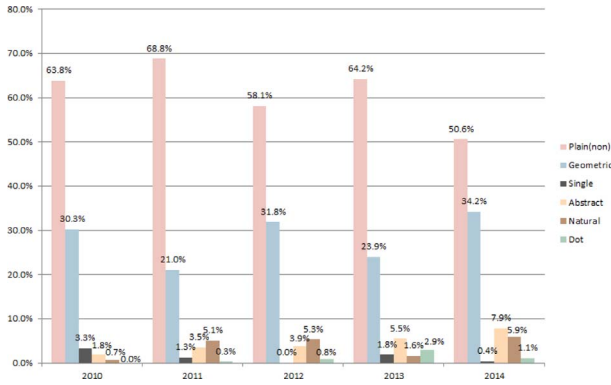


Fig. 1. Yearly changes of the male skirt's pat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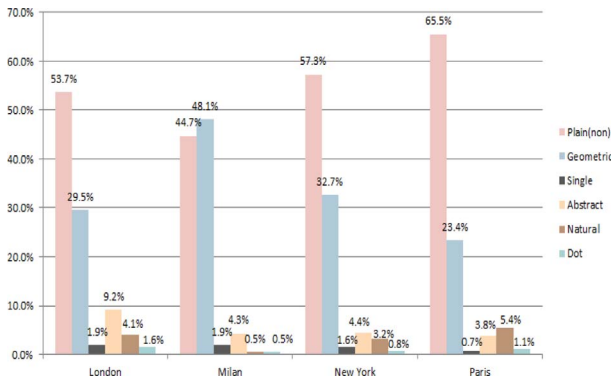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of male skirt's pattern by collection.

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무늬의 분포가 매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남성 스커트의 디자인 요소 중 무늬가 점차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남성 스커트의 무늬 변화를 살펴보면 무늬 없음이 61.6%의 비율을 차지해 5년 동안 단연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도별 평균에서는 기하학적 무늬(스트라이프, 체크)가 28.3%, 추상적 무늬 4.5%, 자연 무늬 3.7%, 단독 무늬 1.4%, 도트 무늬는 1.0%의 비율을 차지했다(Fig. 1).

컬렉션에 따른 무늬 빈도에서는 밀라노를 제외한 런던과 뉴욕 파리 컬렉션에서는 무늬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밀라노에서는 예외적으로 기하학적 무늬(48.1%)가 무늬 없음(44.7%)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ig. 2).

3.1.2. 남성 스커트의 재질에 따른 특성 분석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재질은 비치지 않는 재질이 18.5%, 균일한 재질감이 18.3%, 광택 없는 재질이 18.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14.7%로 중간두께의 재질 이후 빈도가 확연히 낮게 나타났다. 낮은 비율 중에서도 4.1%의 신축성이 있는 재질과 3.8%의 얇고 부드러운 재질은 현대 남성 스커트에서 신축성이 있어 편하고 얇고 부드러운 재질의 스커트가 나타나는 경향을 의미한다. 광택 있는 재질 2.0%, 1.7% 뽀뽀한 재질, 1.3%의 비치지는 재질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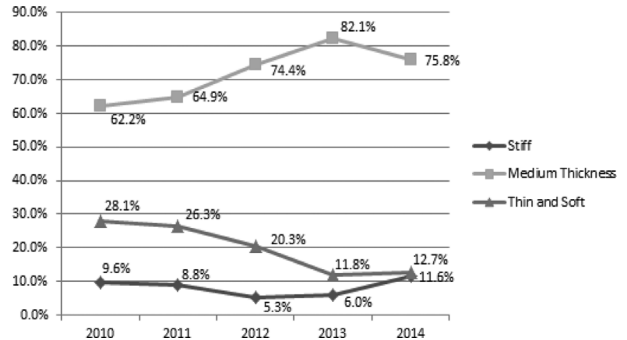


Fig. 3. Yearly changes in male skirt of fabric thick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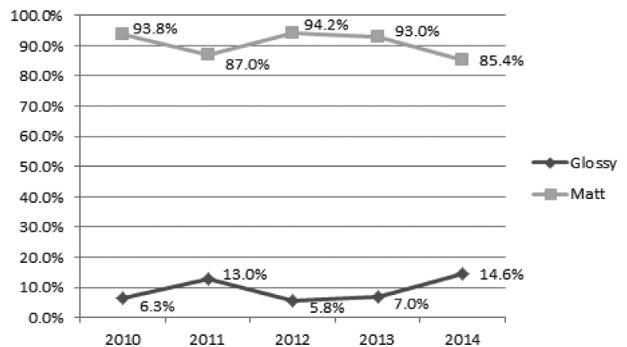


Fig. 4. Yearly changes in male skirt's fabric of glossy and matt.

다. 투명한 소재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남성 스커트에서 여성적인 소재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남성 스커트 재질 두께를 살펴보면, 중간 재질(71.9%), 얇고 부드러운 재질(19.9%), 뽀뽀한 재질(8.3%)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 재질과 얇고 부드러운 재질이 뽀뽀한 재질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남성스커트를 착용함에 있어 편안함과 실용성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Fig. 3). 연도별 남성 스커트 재질의 광택 유·무는 각각 9.3%와 90.7%로 약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 울, 코튼, 리넨, 오간자, 머슬린, 캔버스 같은 천연소재의 균일한 재질의 활용도가 높기 나타나고 있다(Fig. 4). 연도별 남성 스커트 재질의 신축성 유·무 빈도에서는 신축성이 있는 재질은 전체의 21.7%, 신축성이 없는 재질은 전체의 78.3%를 차지하였다(Fig. 5). 남성 스커트에서는 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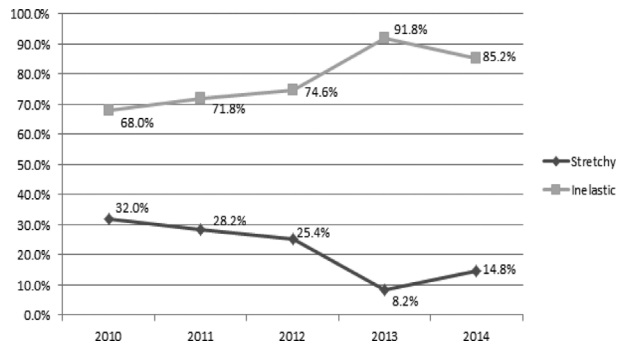


Fig. 5. Yearly changes in male skirt's fabric of stretchy and inelas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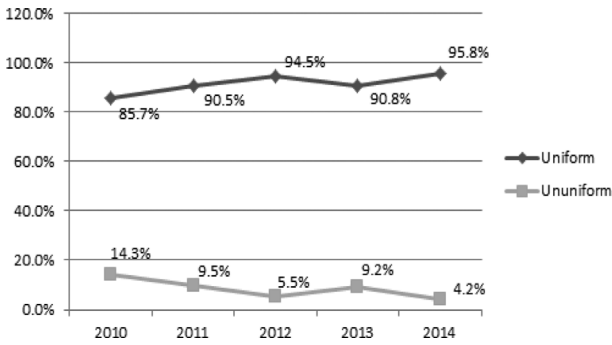


Fig. 6. Yearly changes in male skirt's texture of uniform and ununi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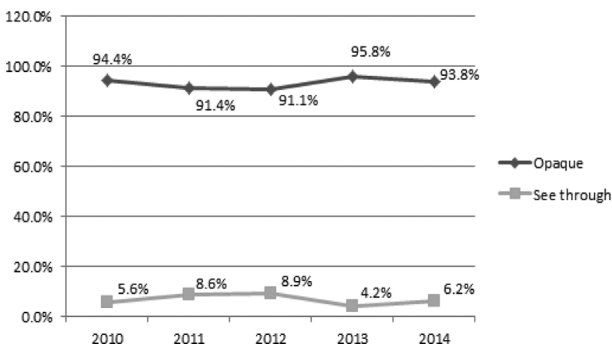


Fig. 7. Yearly changes in male skirt's opaque and see through fabric.

일한 재질감과 불균일한 재질감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는데 균일한 재질감은 전체의 91.4%, 불균일한 재질감은 8.6%로 82.8%의 차이가 나타났다(Fig. 6). 연도별 남성 스커트 재질의 비침(6.7%)과 비치지 않음(93.3%)의 빈도 차이는 86.6%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연도에 따른 남성 스커트의 재질에서는 두께, 광택성, 신축성, 재질감의 균일성, 투명성 모두 높고 낮음의 비율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Fig. 7).

컬렉션별 남성 스커트 재질의 두께 빈도는 중간재질의 소재가 밀라노 컬렉션에서 82.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파리 컬렉션에서는 얇고 부드러운 재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아 실험적이면서 편안한 재질의 남성 스커트를 선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8). 가죽 데님과 같은 뽀뽀한 재질은 뉴욕 컬렉션에서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컬렉션별 남성 스커트 재질의 광택 유·무는 뉴욕 컬렉션(19.8%)이 전체 컬렉션 중 광택이 가장 많이 나는 재질의 남성 스커트가 나타난 컬렉션이다. 반면, 파리 컬렉션(92.2%)은 광택이 없는 재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컬렉션으로 나타났다(Fig. 9). 컬렉션별 남성 스커트 재질의 신축성 유·무를 살펴보면 파리 컬렉션에서 신축성이 있는 재질이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Fig. 10). 파리 컬렉션에서 스판, 니트, 저지, 폴리코튼, 레이온 같은 신축성이 높고 편안한 디자인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테일러링이 발달한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울 모직 재질로 디자인된 남성 스커트가 많이 나타나 신축성이 없는 재질이 중 83.8%의 비율이 사용되어 가장 높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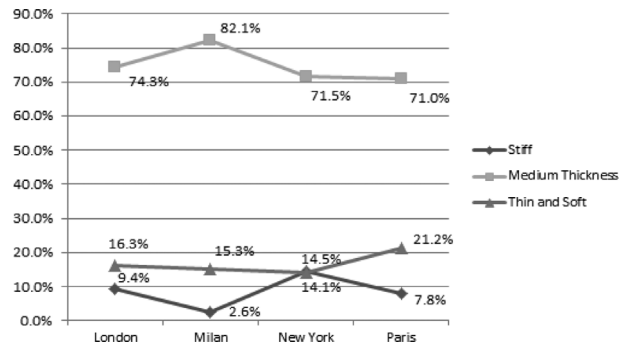


Fig. 8. Distribution of male skirt's fabric thickness by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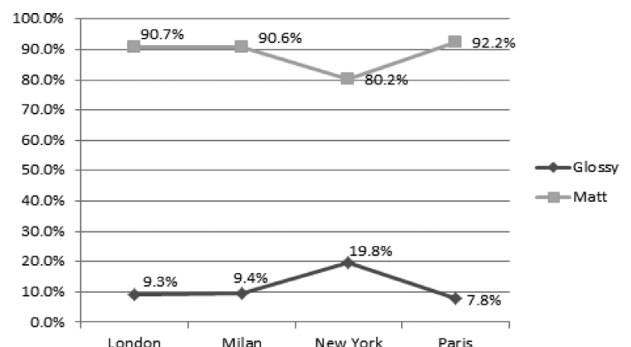


Fig. 9. Distribution of male skirt's fabric of glossy and matt by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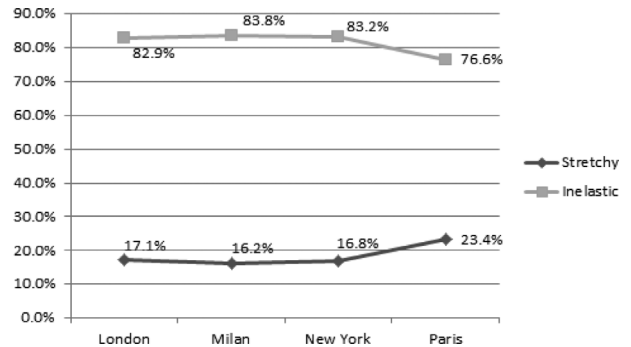


Fig. 10. Distribution of male skirt's fabric of stretchy and inelastic by collection.

나타났다. 불균일한 재질감의 빈도는 각각 런던 컬렉션에서 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뉴욕 컬렉션에서는 94.6%로 소재의 표면이 균일하고 고른 재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11). 뉴욕 컬렉션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실용적이고 모던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파리 컬렉션에서는 비치는 재질 중 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파리 컬렉션에서는 오간자, 시폰, 레이스와 같이 속이 비치는 얇은 소재와 매우 얇은 거즈, 면, 니트, 무슬린과 같이 힘이 없이 하늘하늘한 소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2).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97.0%로 비치지 않는 재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울·모직과 같은 중간 재질 소재의 남성 스커트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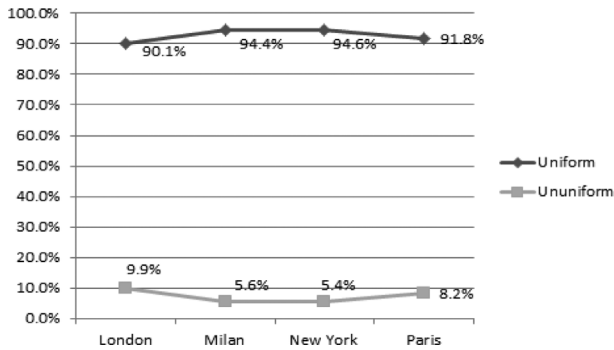


Fig. 11. Distribution of male skirt's uniformity of texture and ununiformity by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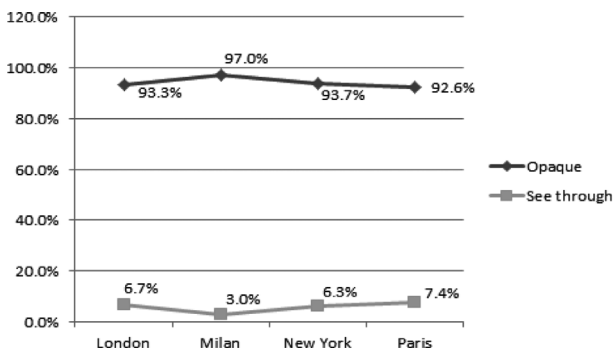


Fig. 12. Distribution of male skirt's transparency of fabric by collection.

밀라노에서는,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소재의 활용이 현대 남성 컬렉션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1.3. 남성 스커트의 색상에 따른 특성 분석

남성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의 색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 면셀의 10색상환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와 세 가지 무채색 W(White), Gy(Grey), Bk(Black)을 포함하여 총 13가지의 색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에는 위 기준의 색상으로 $L_a^*b^*$ 값을 구하고, H(색상), V(명도), C(채도) 값으로 변환하여 색상을 분석하였다. 중복 데이터 체크를 포함하여 전체 총 2874개의 색상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색상의 분포 중 Bk가 가장 높은 비율로 20.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W가 18.5%, PB가 15.8%, Gy 10.6%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범위에 드는 색상은 무채색과 PB로 남성성을 보이는 색상이다. 하위 범위의 색상은 10% 이하로 낮은 빈도를 보였고, 따뜻한 계열 색상과 녹색계열 색상은 Y 6.9%, R 6.7%, YR 4.5%, GY 3.3%, BG 2.7%, P 2.2%, RP 1.9%로 나타났다. 그 중 여성적 이미지의 RP 색상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전체 남성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남성 스커트의 색상은 G, GY, B, PB, BG, W, Gy, Bk로 나타났다(Fig. 13). 여성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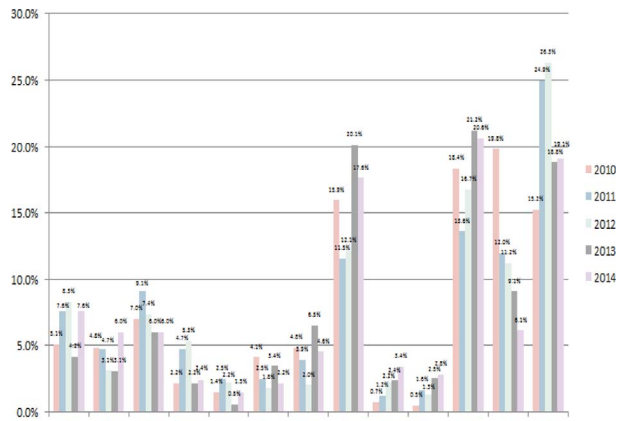


Fig. 13. Yearly color frequency of male ski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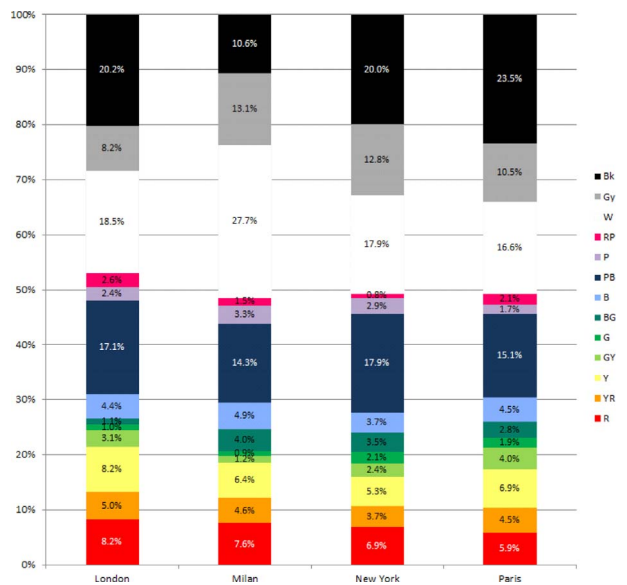


Fig. 14. Color frequency of male skirt by collection.

를 나타내는 색의 활용이 낮은 반면,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상의 활용이 높았다. 연도별 남성 스커트의 색상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 스커트에서 사용된 색상 중에서 Bk가 20.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20.0%로 W 15.5% PB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무채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컬렉션별 남성 스커트 색상의 특성을 보면 밀라노 컬렉션을 제외하고는 런던 컬렉션(20.2%), 뉴욕 컬렉션(20.0%), 파리 컬렉션(23.5%)에서 Bk가 가장 높은 색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W(27.7%)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에 따른 색상빈도와 같이 컬렉션의 색상 빈도에서 또한 무채색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Fig. 14).

3.2. 남성 스커트의 구성 요소에 따른 디자인 특성 분석

스커트의 형태를 이루는 디자인으로서 유행과 길이, 착장의

방식 중 레이어링이 스커트의 구성요소로 평가되었다. 구성요소는 단순히 스커트의 외형과 디자인 특성에 대한 평가가 아닌 남성 스커트를 어떻게 착장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들은 앞의 표현요소로 평가되었고 그 외의 외형적인 구성요소인 유형과 길이, 콤비네이션, 레이어링 방식과 같은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구성요소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유형과 길이 역시 성적 상징성, 문화적 상징성과 연계가 있고, 착장의 방식 또한 어떠한 아이템과 코디네이션을 통해 레이어링 되는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스타일과 이미지가 다르게 보여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3.2.1. 남성 스커트의 길이에 따른 특성 분석

스커트의 길이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여 극단적으로 짧은 마이크로미니, 무릎 위 10~20 cm 정도 되는 미니스커트, 무릎길이의 내추럴 라인 스커트, 무릎과 발목 중간 길이의 미디스커트, 발목 길이인 맥시스커트, 땅에 끌리는 길이의 긴 스커트인 풀 렵스 스커트로 분류하였다.

남성 스커트 길이의 개수는 중복 데이터 체크를 포함하여 총 1837개이다. 전체 남성 스커트의 길이 분포를 보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길이는 34.7%의 빈도를 보인 내추럴 라인 길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니스커트의 길이가 30.2%, 마이크로미니 스커트의 길이가 11.1%, 중간 길이의 미디 10.6%, 맥시 6.8%의 순으로 나타나 풀 렵스(롱) 6.6%, 길이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내추럴 라인을 가장 높은 비율의 기준으로 미디, 맥시, 풀 렵스는 점차 낮아지고 미니, 마이크로미니는 높은 순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론적 배경에서와 같이 남성들이 스커트를 착용함으로써 근육질의 다리라인을 노출하여 육체미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남성 스커트의 길이 비율을 보면, 마이크로미니는 2014년 13.2%, 미니는 2011년 34.4%, 내추럴은 2010년 38.4%, 미디는 2013년 12.4%, 맥시는 2013년 10.2%, 풀 렵스는 2012년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다른 아이템과 레이어링을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길이의 내추럴과 미니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Fig.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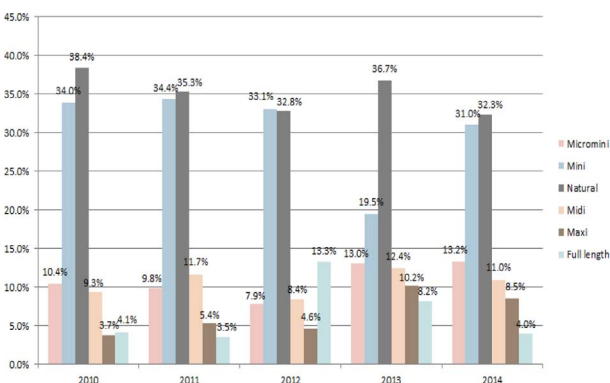


Fig. 15. Yearly changes in length of male ski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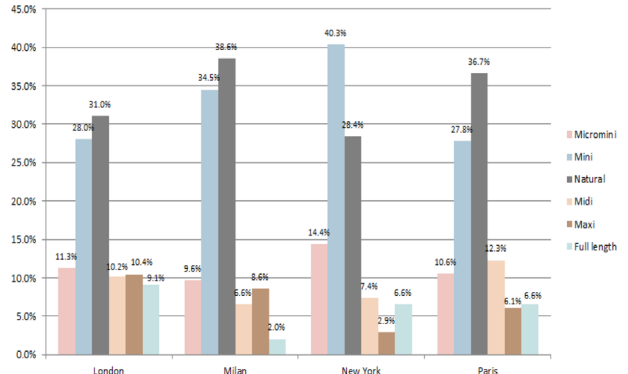


Fig. 16. Changes in length of male skirt by collection.

컬렉션에 따른 남성 스커트의 길이를 살펴보면 런던(31.0%) 밀라노(38.6%) 파리(36.7%) 세 컬렉션에서 모두 내추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뉴욕 컬렉션에서는 미니(40.3%)의 비율이 내추럴(28.4%) 보다 높게 차지했다(Fig. 16).

3.2.2. 남성 스커트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스커트의 유형은 킷트, 플리즈, 랩 스커트, A라인, 타이트, 벌룬, 사롱, 개더, 원피스로 나누어 분류되었다. 원피스는 드레스의 유형으로 상하의가 연결되어있고 밑 부분이 스커트인 형태로 스커트의 연장으로 보았기(Kim, 2003)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스커트에 원피스(드레스)를 포함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높은 빈도는 원피스(52.8%)로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스커트는 가장 기본 라인인 타이트스커트(21.8%)로 나타났다. 플리즈와 랩 스커트는 남성적인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는 디자인으로 컬렉션에 빈번히 나타나는 스커트 유형이다. 플리즈는 6.5%, 랩 스커트는 6.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외 벌룬 4.1%, A라인 3.0%, 사롱 2.7%, 킷트 1.9%, 개더 0.8% 순으로 나왔다.

연도별 높은 비율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타이트(30.0%), 2013년에는 원피스(57.4%), 2012년에는 벌룬(8.7%), 플리즈(12.2%), 2011년에는 개더(2.1%), 킷트(3.9%), 2010년에는 사롱(5.6%), A라인(6.3%), 랩(13.7%)으로 나타났다(Fig. 17). 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한 유형의 스커트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13년과 2014년에는 기본 스타일인 타이트와 원피스의 빈도가 상승했다.

컬렉션별 남성 스커트 유형 분포는 런던(53.6%), 밀라노(54.8%), 뉴욕(54.2%), 파리(51.8%) 컬렉션에서 모두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원피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킷트, 플리즈 랩, 사롱, 원피스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Fig. 18).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남성 스커트 활용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뉴욕 컬렉션에서는 타이트스커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 스커트인 킷트의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 같았던 런던 컬렉션에서는 A라인의 스커트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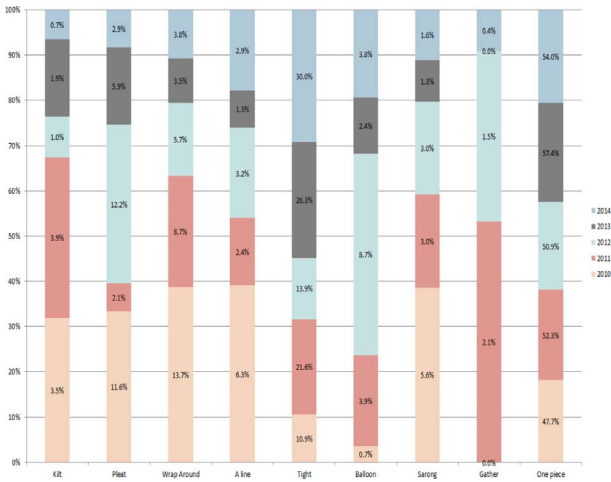


Fig. 17. Distribution of male skirt type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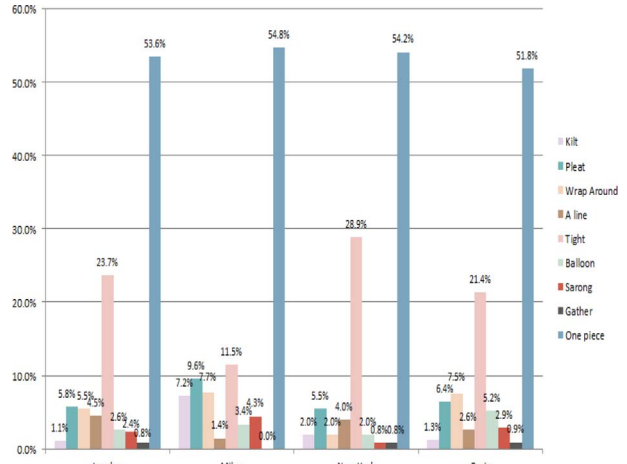


Fig. 18. Distribution of male skirt type by collection.

Layering



Image 1. Jean Paul Gaultier 2011 F/W, www.style.com	Image 2. Ready-to-wear RAD by Rad Hourani 2012 S/S, www.vogue.co.uk.	Image 3. Menswear Givenchy 2011 S/S, www.style.com	Image 4. Thom Browne 2011 F/Menswear E Tautz 14 W, www.style.com	Image 5. Menswear Raf Simons 2011 S/S, www.vogue.co.uk.	Image 6. Menswear Raf Simons 2011 S/S, www.style.com
Pant	Exposure		Socks · Leggings · Stocking		Layering full setting

Fig. 19. Male skirt designs according to the layering case.

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는 파리 컬렉션에서는 벌룬, 개더스커트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2.3. 남성 스커트의 착장방식(레이어링)에 따른 특성 분석
현대 남성 스커트의 레이어링(layering) 방식을 살펴보면 팬츠와 함께 스커트를 착용한 착장방식, 맨 다리를 노출하여 보여주는 방식, 양말, 스타킹, 레깅스와 함께 스커트를 착용한 방식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 할 수 있다(Fig. 19). 전체 데이터의 레이어링 분포를 살펴보면 총 2422개의 데이터 중 1196개로 49.4%의 팬츠와 함께 혼용하여 입을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남성들이 스커트를 착용했을 때 다리를 노출하며 착용하는 방식은 20.8%로 나타났는데, 다리를 노출할 때는 양말과 함께 스커트를 착용하는 방식이 가장 빈번히

나타났다. 양말 · 스타킹 · 레깅스와 함께 레이어드 한 착장방식은 29.8%로 나타났다(Fig. 20). 팬츠와는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2010년부터(335개) 2014년까지(749개) 지속적으로 스커트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스커트와 함께 혼용하여 다른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은 남성적 미적 특성을 반영한 남성 스커트의 남성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남성 스커트의 착장방식 중 가장 높은 49.4%의 비율을 차지한 팬츠와 레이어링한 데이터를 분류하여 다시 분석해보았더니 길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출, 양말 · 스타킹 · 레깅스와 레이어링한 경우 내추럴 길이가 가장 높았으나 팬츠와 함께 레이어링되는 스커트의 경우 미니가 더 높은 특성이 있었다. 스커트의 길이 중 짧은 길이에 속하는 마이크로미니와 미니는 각각 12.2%, 37.0%로 팬츠와 함께 레이어링했을 경우 가장 활용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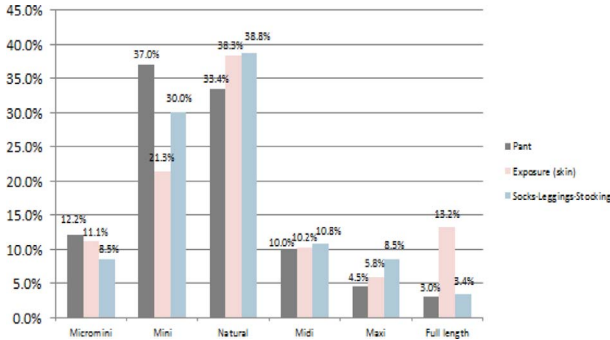


Fig. 20. Analysis of length according to the layering.

Table 2. Distribution of layering with pant male skirt

	Skirt with layering item			Total
	Pant (Full length pant)	Pant (short pant), Exposure (skin)	Socks · Leggings · Stocking	
N	712	121	363	1196
%	59.5	10.1	30.4	100.0

반면 길이가 가장 긴 풀 령스(롱)는 다른 아이템과 혼용이 적은 편이고 스커트 하나만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13.2%로 다리를 노출하는 방식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Table 3). 양말 · 스타킹 · 레깅스와 함께 레이어링할 경우 중간 길이의 스커트인 내추럴, 미디와 긴 길이의 맥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내추럴은 38.8%, 미디는 10.8%, 맥시는 8.5%의 비율로 양말 · 스타킹 · 레깅스와 레이어링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연도별 남성 스커트의 레이어링 방식의 비율을 보면 팬츠와의 레이어링이 전체 컬렉션의 49.4%를 차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양말 · 스타킹 · 레깅스와의 레이어링이 전체 컬렉션의 29.8%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레이어링 없이 스커트 하나만을 착용하여 맨 다리를 노출하거나 팬츠 또는 양말 · 스타킹 · 레깅스와의 레이어링에서도 다리를 들어내어 노출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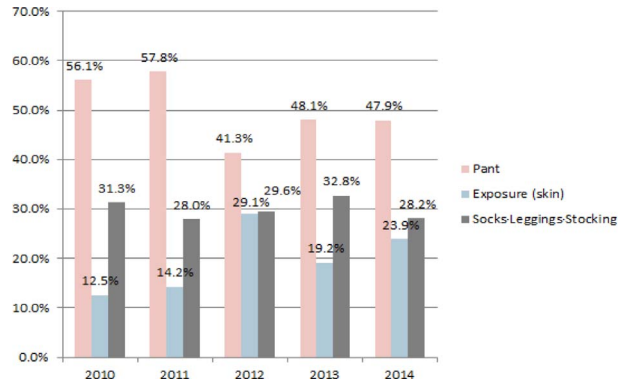


Fig. 21. The way of wearing (layering) with male skirt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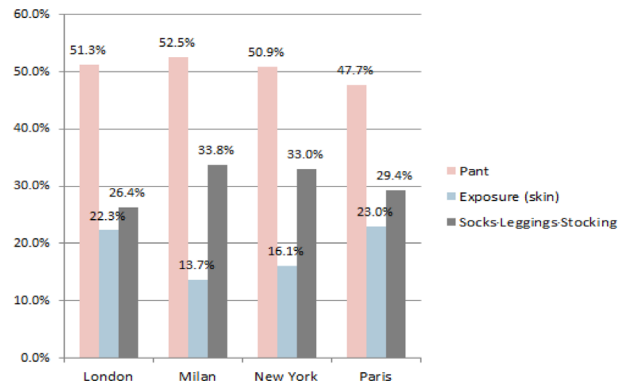


Fig. 22. The way of wearing (layering) with male skirt by collection.

이 전체의 23.9%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Fig. 21). 남성 스커트는 착용방식에 있어 스커트와 함께 다른 아이템과의 레이어링을 통해 착용하여 여성스커트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였다. 팬츠와의 레이어링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었지만, 양말 · 스타킹 · 레깅스와 같은 얇고 부드러운 재질의 팬츠 같은 유형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컬렉션별 레이어링의 특성을 보면 런던 컬렉션 51.3%, 밀라노 컬렉션 52.5%, 뉴욕 컬렉션 50.9%, 파리 컬렉션 47.7%로 네 컬렉션 모두 팬츠와의 레이어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팬츠(52.5%)와 양말 · 스타킹 · 레깅스(33.8%)와의 레이어링은 밀

Table 3. Analysis of length according to the layering (length double check)

Way of layering	Length		Micromini	Mini	Natural	Midi	Maxi	Full length	Total
			Male skirt		N	149	452	408	122
Pant	Exposure (skin)	%	12.2	37.0	33.4	10.0	4.5	3.0	100.0
		N	59	113	203	54	31	70	530
Socks · Leggings · Stocking	Exposure (skin)	%	11.1	21.3	38.3	10.2	5.8	13.2	100.0
		N	62	219	283	79	62	25	730
Socks · Leggings · Stocking	Socks · Leggings · Stocking	%	8.5	30.0	38.8	10.8	8.5	3.4	100.0

라노 컬렉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레이어링이 가장 잘 표현된 컬렉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리의 노출은 파리 컬렉션(23.0%)에서 가장 많이 보여졌다(Fig. 22). 파리 컬렉션에서는 마이크로 미니, 미니, 내추럴과 같이 짧은 길이의 스커트 활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밀라노 컬렉션은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링을 통한 착장방식의 활용이 높고, 파리 컬렉션에서는 스커트 길이의 변화를 주어 레이어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남성 스커트 디자인의 성별 상징성과 남성적 이미지 확장에 대한 논의

현대 남성 스커트 디자인의 표현 요소와 구성 요소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들의 성별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남성 스커트 디자인의 성별 상징성의 관계에 따른 남성 이미지 확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남성 스커트를 구성하는 표현요소 중 무늬를 살펴보면 무늬가 없거나 스트라이프, 체크를 포함한 기하학 무늬·단독 무늬 등 남성성을 가진 무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재질은 비치지 않고, 광택 없는 무광의 재질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 Table 1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적 이미지의 요소였다. 즉, 남성 스커트의 경우 여성적 아이템으로 여겨지지만 무늬와 재질감은 남성적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택에서는 광이 나지 않는 무광 표면의 재질은 남성성, 광택이 있어 반짝거리는 페이턴트 재질은 여성성으로 구분되었다. 신축성의 유·무에서는 남성성을 가진 재질은 신축성이 없는 면·모·마와 같은 기본적인 재질로 분류되었다. 반면, 신축성이 좋아 늘어나는 스판·니트·저지와 같은 재질은 여성성으로 나뉘었다. 재질감을 보면 표면이 균일하여 평평한 재질은 남성성, 반대로 평평하지 않고 스펅글, 반짝이, 퍼, 벨벳처럼 울퉁불퉁 튀어나오거나 표면이 거친 화려한 재질은 여성성을 띠었다고 보았다. 또한, 투명하고 속이 비치지는 재질은 여성성을 띠며, 불투명한 재질은 남성성을 가진 재질로 가장 대표적인 소재로 나타났다. 색상에서 가장 비중 있던 Bk는 남성적 이미지의 색상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표현 요소별 성별 상징성을 분석한 결과 현대 남성 스커트는 무늬가 없는 소재, 뻣뻣하고 중간정도의 경도를 나타내는 재질감, 불투명한 직물의 사용으로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 남성 스커트의 색의 사용에는 무채색의 Bk와 유채색의 PB가 높았다. 이는, 여성적 복식으로 인지되고 있는 스커트를 남성복에 도입한 혁신적인 변화와 달리 조형적 요소의 사용에는 전형적인 남성적 이미지의 조형 요소들을 그대로 사용되는 이중적인 특성이 나타났다. Fig. 23과 같이 남성 스커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요소는 무늬가 없으며, 면·울과 같이 중간정도 두께의 재질, 광택과 신축성이 없고,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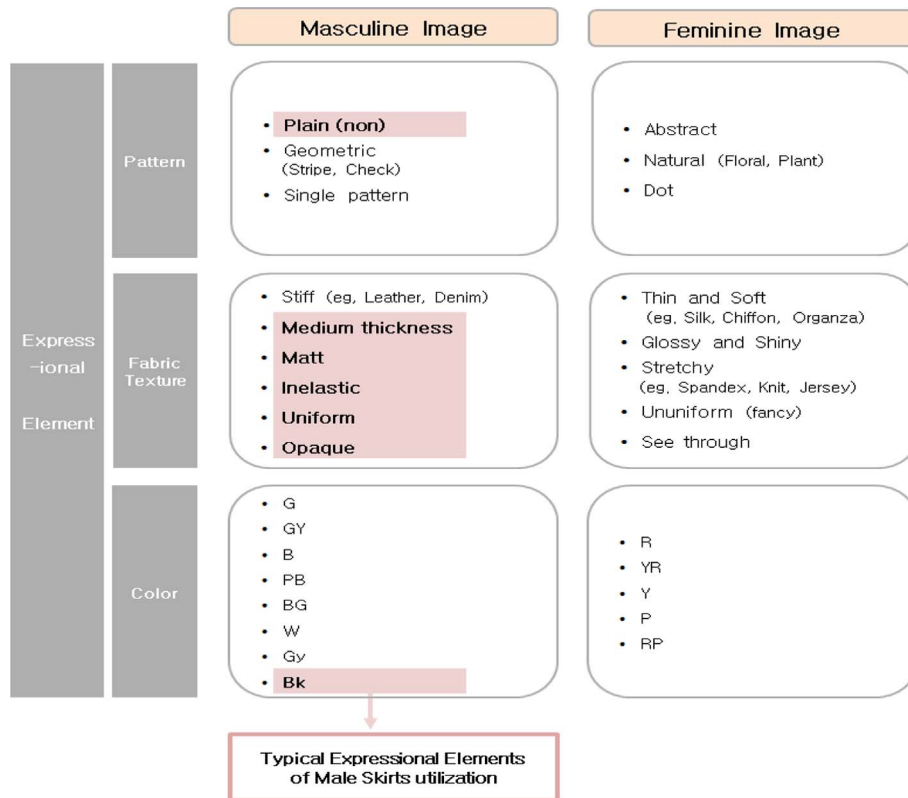


Fig. 23. Typical expressional elements of male skirts utilization.

적인 균일한 재질과 불투명한 소재, 그리고 무채색인 Bk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남성 스커트의 유형과 착장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 구성적 측면을 분석해보면, 남성 스커트의 구성 중 길이는 기본 무릎길이인 내추럴 길이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스커트의 유형은 원피스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성 스커트의 착장의 방식을 살펴보면 레이어드(layered)는 ‘층이 있는, 층을 이룬, 겹친’을 뜻하는 것으로, 특히 레이어드룩은 ‘겹쳐 입기’를 통해 격식에 메이지 않고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갖춰 입을 것을 말한다(Calasibetta et al., 2003). 스커트 하나만을 단독으로 착용하는 여성 스커트와 달리, 남성 스커트는 다른 아이템과 레이어링을 통한 착장 방식이 특징적이었다.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팬츠, 노출, 양말 · 스타킹 · 레깅스를 레이어링 함으로서 복합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현대 남성 스커트의 레이어링을 분석한 결과 팬츠와의 레이어링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경우 팬츠 위에 스커트를 착용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단순히 기본적인 발목길이의 팬츠 뿐 아니라, 짧은 팬츠를 착용해 다리를 노출하거나 스타킹 · 레깅스 · 양말을 일부러 보여주는 등 다양한 아이템의 활용으로 코디네이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남성 스커트가 여성성과 남성성을 가진 디자인 요소를 과시적으로 차용하는 것을 떠나 여러 아이템과의 중첩, 혼용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형태와 착장방식으로 분류된 남성 스커트의 구성요소는 Fig. 24와 같이 셔츠와 티셔츠의 길이가 연장되어 나타난 원피스 유형과 기본 무릎길이의 내추럴 길이 그리고 팬츠와의 레이어링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착장방식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팬츠와 레이어링 한 스커트의 길이는 미니, 내추럴, 마이크로미니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형적인 발목라인의 팬츠뿐 아니라 다양하게 변형된 길이의 팬츠를 레이어링하여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커트와 함께 짧은 길이의 팬츠를 착용할 경우 스커트 하나만 착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다리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양말 · 스타킹 · 레깅스와 코디네이션 할 경우는 스커트의 길이와 상관없이 아이템이 드러날 수 있도록 레이어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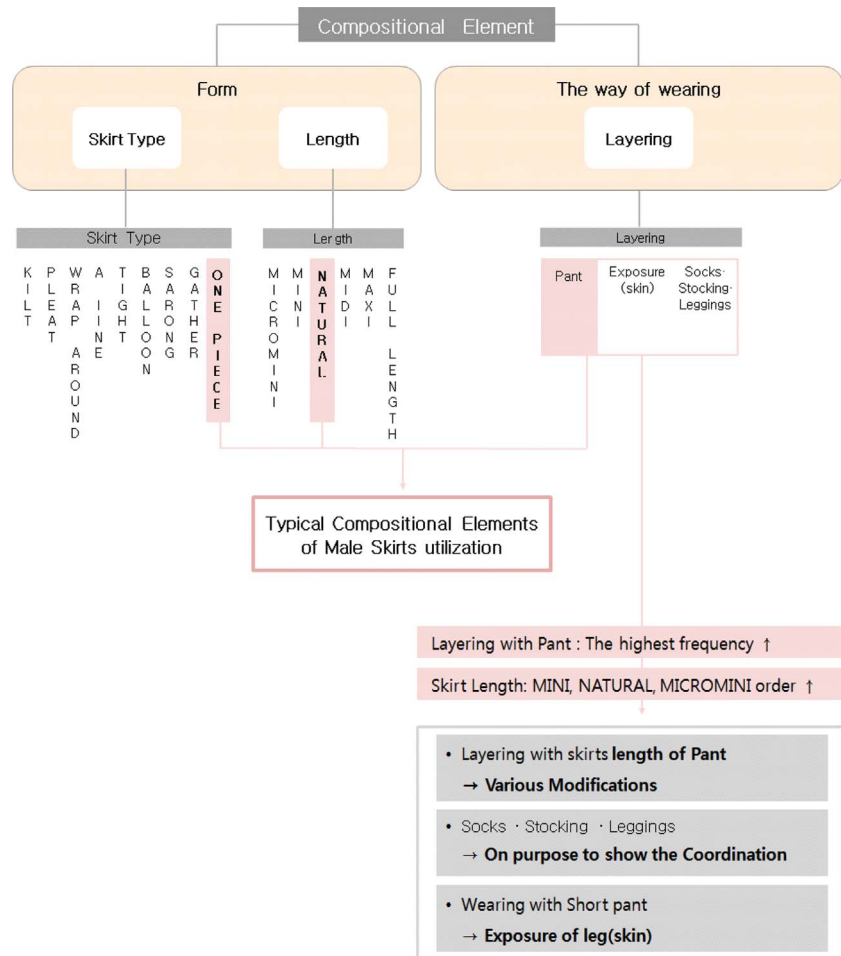


Fig. 24. Typical compositional elements of male skirts uti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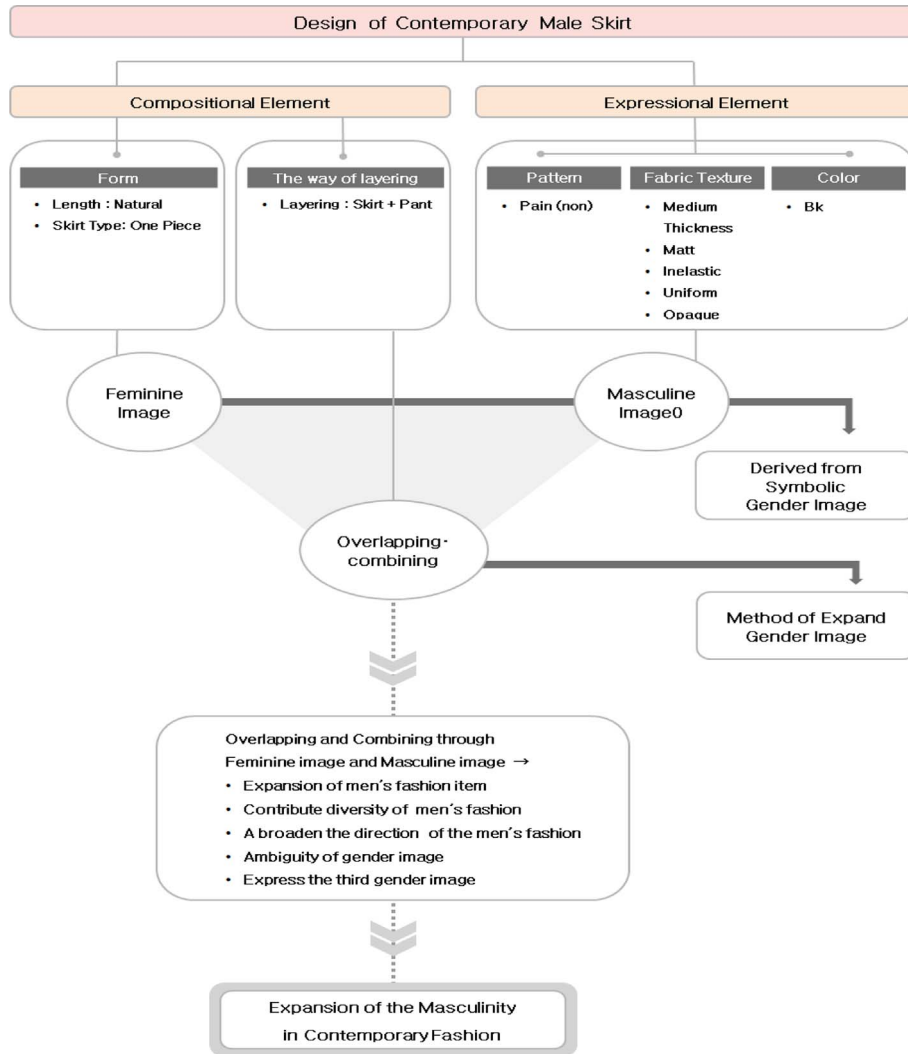


Fig. 25. Design characteristics of male skirt and expansion of the gender image.

레이어링에 의한 중첩은 여러 층이 겹쳐지고, 형태의 겹침을 통해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위에 겹쳐지면서 서로의 의미가 혼합되거나 중첩되어 이미지가 확장되는 것이다(Naomi, 1999; Son, 2011). 즉, 남성 스커트가 스커트와 팬츠, 스커트와 스타킹·레깅스·양말, 노출과 같이 다른 아이템들이 함께 중첩되면서 여성성 차용의 상징인 ‘스커트’는 기존의 스커트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표현한다. 레이어링 착장방식은 중첩을 통해 남성 스커트가 가진 성별의 모호성과 확장적 이미지를 더욱 확대하여 드러낸다.

종합하면, 현대 남성 스커트의 디자인 표현 요소에서는, 무늬·재질·색상 세 가지 모두 남성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이템과 형태면에서는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남성 스커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레이어링을 통한 착장의 방식으로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의 형태, 아이템, 표현 요소 등의 중첩과 혼용의 기법으로 성별 모호성과 성별 이미지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스커트는 남성 패션에 있어 단순히 여성복을 가져와 착용한 것이 아니라 레이어링을 통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중첩함으로써 여성 스커트와는 차별화되는 남성 패션의 이미지와 미적 특성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Fig. 25).

현대 패션은 남성·여성 모두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을 추구하며 유니섹스·젠더리스·앤드로지니어스와 같이 고정적 성별 이미지를 뛰어넘어 해체되고 재해석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제약없는 형태의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스커트 역시 스커트가 여성성을 보여주는 여성 고유의 복식이라는 인식을 떠나, 남성의 성별 이미지와 미적 특성을 확장하고 재해석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의 스커트는 여성의 복식을 넘어서, 남성 패션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될 뿐 아니라, 중첩과 혼용을 통해 현재 남성의 패션 이미지를 확장하고 다양화하여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적인 이미지가 아

년 제 3의 성 이미지를 제안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적 이미지의 확장을 통해 성적 정체성, 역할의 확대와 같은 남성성의 확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는 최근 현대 남성 패션에서 대중화되어가며 하나의 고유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남성 스커트를 디자인의 표현요소와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고, 어떠한 성별 상징성을 가지는지 연계성을 분석하여 표현요소와 구성요소들이 가지는 남성 스커트의 상징성과 남성 스커트의 차별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스커트 디자인 표현요소(무늬·재질·색상)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의 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자인 표현 요소의 분석결과, 무늬의 경우 남성 스커트에서 남성적 이미지를 가진 디자인요소에 포함된 무늬 없음, 기하학적 무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무늬에 따른 스커트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재질의 데이터 분석결과 중간정도의 두께, 광택과 신축성이 없으며, 균일하고 비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재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뽀뽀함과 광택이 있는 재질, 균일한 재질은 뉴욕 컬렉션이, 중간 정도의 재질, 신축성이 없는 재질, 비치지 않는 재질은 밀라노 컬렉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남성 스커트의 재질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재질의 특성을 보면 남성성을 띤 재질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색상은 Bk, W, PB, Gy, Y, R, YR, B, GY, BG, P, RP, G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 세 가지와 유채색 열 가지 열세가지 색상 중 연도별, 컬렉션별에 따른 색상에서도 Bk, Gy, W위주의 무채색이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에 포함되었다. 남성 스커트의 표현요소인 무늬, 재질, 색상 모두 남성적 이미지의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스커트의 구성요소(길이, 스커트 유형, 착장의 방식)를 분석한 결과 내추럴 길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뉴욕에서는 미니 길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짧은 길이의 스커트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레이어링을 통해 착장하는 남성 스커트의 특성으로 팬츠나 레깅스, 스타킹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이기 때문이다. 스커트의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원피스, 타이트, 플리츠, 랩, 벌룬, A라인, 사롱, 킷트, 개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원피스가 과반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다.

남성 스커트의 차별적인 특성으로 착장방식을 볼 수 있는데, 레이어링을 통한 착장방식 중 팬츠와 함께 레이어링 한 방식이 단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밀라노 컬렉션에서 팬츠와 양말·스타킹·레깅스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팬츠와의 레이어링을 따로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발목길이의 팬츠와 함께 코디네이션 한 것과 더불어 다양하게 팬츠의

길이가 변형되어 있고 짧은 길이의 팬츠를 착용하여 다리를 노출하거나 일부러 양말이나 레깅스를 보이도록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남성 스커트의 표현 요소와 구성 요소를 종합해 보면, 대표적 표현 요소인 무늬 없음, 중간정도 두께의 재질, 광택 무, 신축성 무, 균일한 재질감, 비치지 않음, Bk색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표현 요소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남성적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스커트의 형태는 내추럴 길이와 원피스 유형이 높게 나타나 여성적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착장의 방식은 팬츠와의 레이어링을 통해 착장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중첩과 혼용을 통한 방법론에서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대 남성 스커트는 남성적 이미지의 표현요소와 여성성을 차용한 스커트의 형태, 아이템의 중첩과 혼용을 통한 착장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남성 스커트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용을 통해 남성 패션을 확장, 남성 패션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차별적 방법으로 중첩과 혼용을 통하여 성별 이미지의 모호성과 제 3의 성별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 패션디자인 및 복식의 성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현대 남성 패션의 변화를 통해 현대 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가 최근 5년간 디자이너 컬렉션 중심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남성복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중적 소비 특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References

- Bang, S. R. (2007). Symbolism on men's skirt of the west and the east.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0(2), 67-82.
- Calasibetta, C. M., Tortora, P. G., & Abling, B. (2003). *The Fairchild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ns.
- 'Jean Paul Gaultier 2011 F/W'. (n. d.). *Style.com*. Retrieved March 27, 2014, from <http://media.style.com/image/ts/slideshows/2011/fashionshows/F2011MEN/JPGAULTI/RUNWAY/683/1024/00040fullscreen.jpg>.
- Kim, Y. J. (1992). *Beauty of Korean clothes*. Seoul: Minumsa.
- Kim, Y. J. (2003). *Fashion design for the practice*. Seoul: Kyongchunsa.
- Kim, S. Y. (1995). *The androgynous tendency in the plastic elements of the modern men's wea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hee University, Seoul.
- Lee, H. J., & Park, O. L. (2005). The relationship of factor of feminization in men's fashion and sex role stereotype-the viewpoint of 20's~30's women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4(6), 1027-1035.
- Lee, J. H. (2010). Diachronic analysis of Korean men's wear design based on changes in gender ro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8), 51-66.
- Lee, M. S. (1993). *Historical study on the visual in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Y. M., & Lee, Y. H. (2005a). Orientalism in Modern Men's Skirt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3(1), 133-149.
- Lee, Y. M., & Lee, Y. H. (2005b). Male gender identity appeared in a skirt - Focused on scottish kilt.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Spring Conference, Korea*, pp. 59-61.
- Lee, Y. M., Lee, Y. H., & Lee, Y. M. (2004). A study on the male skirt in modern fashion - Focused on the history of male skirt.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Spring Conference, Korea*, pp. 133-136.
- 'Menswear E Tautz 14 S/S'. (2013, June 18). *Vogue*. Retrieved March 20, 2014, from http://cdni.condenast.co.uk/592x888/Shows/SS2014/London/Mens/e_tautz/00210h_592x888.jpg.
- 'Menswear Givenchy 2011 S/S'. (2010, June 25). *Style.com*. Retrieved May 17, 2014, from <http://cdni.condenast.co.uk/1280x1920/Shows/SS2011/Paris/Mens/Givenchy/00170big.jpg>.
- 'Menswear Raf Simons 2011 S/S'. (2010, June 26). *Style.com*. Retrieved May 20, 2014, from http://media.style.com/image/ts/slideshows/2010/fashionshows/S2011_MEN/RSIMONS/RUNWAY/683/1024/00210fullscreen.jpg.
- Naomi, A. (1999). *Flat composition*. (H. S. Kim & Y. Jo, Trans.). Seoul: Johyungsa.
- Oh, H. S., & Park, H. S. (2001). *Design for fashion*. Seoul: Kyongchunsa.
- Park, M. R. (1995). *Study on the feminization of menswear-focusing on 1991 to 1995*.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Ready-to-wear RAD by Rad Hourani 2012 S/S'. (2011, September 13). *Vogue*. Retrieved March 20, 2014, from http://cdni.condenast.co.uk/592x888/Shows/SS2012/New_York/R-T-W/rad_by_rad_hourani/00030big_592x888.jpg
- Son, N. R. (2001). *The objectified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depaysment and its emotional impact-Focusing on contemporary food and beverage spa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Thom Browne 2011 F/W'. (n.d.). *Style.com*. Retrieved May 02, 2014, http://img2.doosanmagazine.gscdn.com/collection/season/49/2011_fw_mens_thombrowne_f35h.jpg.
- Woo, J. I. (2004). *A study on men's skirts in moder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Yasuro, O. (2010). *World ethnic costume-clothing and cultural anthropology*. (W. H. Jo & C. S. Park, Trans.). Seoul: Minsokwon.

(Received 23 February 2015; 1st Revised 14 March 2015;
2nd Revised 16 April 2015; Accepted 25 April 2015)